

올 1-2월 아시아의 대미 컨수출물량 20% 증가

당초 선복과잉 예상과는 달리 선복수급 타이트

올들어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.

미국 통관 통계데이터 서비스회사인 JOC-PIERS에 따르면 올 1-2월중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은 236만951TEU로 전년동기대비 20.2% 증가했다.

특히,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(TSA)는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통하여 금년 1-2월 중 동항로 컨테이너화물의 이동량은 전년동기대비 20% 가량 증가하는 등 수급이 타이트한 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, 3-4월에도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는 등 TSA 회원선사의 소식률이 거의 만선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.

TSA는 중국의 경제성장 지속과 미국 경제의 호조로 2006년 한해동안에도 선복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분석했다.

더구나 TSA는 아시아-미국항 컨테이너화물 가운데 북미서해안 항로의 경우 19% 증가했고, 파나마 경유의 동해안 항로가 26% 증가했다며, 이같은 증가율은 예년에도 없을 만큼의 고수준이라고 강조했다.

이같은 증가율은 2006년의 시황을 점치는 재료로서는 소극적으로 봐도 상당한 호재로 평가되고 있다.

TSA의 알버트·A·피어스 의장은 아시아-미국항 컨테이너물동량의 증감을 좌우하는 미국 경제도 "소비 증가가 다소 둔화되는 것 외에는 기업의 설비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매우 건전하다"며,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의 준공으로 수급균형이 허물어진다는 염려도 있었지만, 공급증가율을 웃도는 물동량 증가율이 이같은 우려

를 잠식시켰다고 지적했다.

사실상,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아시아발 북미 전용의 소식률도 평균으로 서해안 항로가 90%대 중반, 동해안 항로는 100%에 달하는 거의 만선상태를 기록하는 등 시황하락의 요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.

이에 반해 정기선사들의 운항코스트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. TSA 선사들은 2006년 연중 최악이어도 7%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.

왕복항 불균형에 의한 미국으로부터 아시아지역으로의 공컨테이너의 회송 비용으로 11%, 육지의 철도나 트럭 등의 수송비용으로 25% 각각 코스트가 상승한다고 한다. 이와함께 국제원유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연료유 가격의 급등도 코스트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.

한편, 금년 1-2월 중 아시아-미국항 컨테이너화물의 선적국별 증감현황을 보면,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, 일본, 대만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기간중 중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화물은 69만5,439TEU로 전년동기대비 23.8% 증가했으며, 일본은 8만5,877TEU로 23.5%, 한국은 6만 1,453TEU로 54.6%, 대만은 5만6,516TEU로 17.5%, 태국은 3만8,180TEU로 12.2%, 인도네시아 2만5,961TEU로 26.6%, 말레이시아 2만 5,961TEU로 27.5%, 베트남 2만4,663TEU로 33.5%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반면, 이 기간중 미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은 76만5,990TEU로 전년동기 대비 8.3% 증가한데 그쳤다.